

이번엔 '임단협 유예'...대기업·노동계 불신이 주요인

'광주형 일자리' 결정적 순간마다 급제동 왜?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지리한 협상을 타결하고 잠정협의를 만들면서 승풍을 탈 것으로 예상했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장 설립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5일 급제동이 걸렸다. 잠정협약안에 지역노동계가 '법령에 위배된다'며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임금협상 유예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노동계를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 조항을 수정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현대차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현재까지는 지역노동계와 현대차의 사이에서 사실상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조건부 결의 소식을 접한 현대차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화형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형 일자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정이 입장을 반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35만대 생산까지 유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
현대차 "수정·후퇴 더 안된다"

의미와 함께 상생협의회의 가동, 즉 임금협상의 유예 조치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도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과 노동계의 근간에 자리한 '불신'이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대차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신설법인인 경영초기 노조의 요구에 휘둘러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지역노동계는 현대차가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를 광주시를 방패 삼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상호 불신의 간격을 광주시가 채우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내밀며 투자협약조인을 가로막고 있다. '노사민정 상생 모델'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것이다. 이는 신설합자법인의 운영에도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가 문제가 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달 1일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작성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문'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노동계가 '노



5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사민정협의회 이탈'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합의문에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에 있어서 주 40시간 근무만 들어있을뿐 임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시켜 사고하며, 적정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작동하게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 역시 현대차의 반발을 샀다.

이 합의문을 작성한 후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으며, 지난달 28

일 광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역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다시 협상이 가능해졌다.

현대차와 협상동력을 간신히 유지한 광주시는 이번에는 현대차의 주장을 잠정협약안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35만대 생산까지 임금협상 유예였다. 이는 5년간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최종협약서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현대차는 이 부분을 협상 과정에서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역노동계 및 현대차와 각각

20여 차례 이상 만나면서 이들을 조율했지만 결국 막판까지 기업과 노조의 관계 속에서 점점 찾기에 애를 태우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적정임금과 적정근로시간 등을 주 44시간 3500만원 기준으로 향후 신설법인이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막판 또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6일로 예정된 투자협약식은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협약식을 맺더라도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하는 제1

대 주주 광주시의 고민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타협하지 못한 상당 부분의 내용을 신설법인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호 불신하고 있는 기업과 노동계를 상대하면서 신설법인의 지속가능한 경영, 수익 창출 등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제외한 민주노총, 그리고 투자유치추진단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까지 이번 협상타결안에 대해 부정적인 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기·의제부터 경호·의전·이벤트까지 '김위원장 답방' 준비 고심하는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후 만남 희망
"교통 등 국민 불편 양해해 주길"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변수를 고민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의 모멘텀'이라는 말로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에 공감한 뒤,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답방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비중을 두고 고민하는 변수는 단연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지난 1일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북미정

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두 번째 대화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제재완화 문제까지 어느 정도 결실을 본다

고 가정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남북 정상 이 만난다면 경호 등에 더 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역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도 그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나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기나 의제와 별개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는 청와대가 가장 고민스러운 대목 중 하나는 경호·의전 문제다. 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두고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경호나 안전 문제 아닐까 생각한다"며 "경호나 안전 보장을 위해 교통 등 국민이 양해해주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 답방 시 교통 통제 등이 불가피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15만 평양 시민을 앞에 두고 했던 늘라도 5:1 경기장 연설에 조응할 만한 상징적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숙제다. 이와 관련, 남북 정상이 함께 한라산에 오르는 시나리오와 함께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약자지결 정겨운 민족 최대 월동행사 김장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8) 겨울나기

한국 사람의 겨울나기는 김장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겨우겨우 살아야 해서 겨울이라고 했던 지난 시절 김장 김치가 그 긴 겨울을 나기 위한 겨울의 반양식(半糧食)이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생활 양식도 변한 요즘에도 겨우내 먹을 김장 담그기가 여전히 최대 월동 행사인 것이 때로 경이로울 때가 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광주 김치'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김장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문화라는 사실이 새삼 자랑

스럽다.

약자지결하고 정겨운 우리 김장문화를 작품으로 남긴 오윤 작가(1946-1986)는 조각가이며 판화작가. 오윤 작가의 고무판화 작품 '김장' (1984년 작)은 양념소를 만들기 위해 갖은 채소를 준비하고 있는 아낙과 절임배추를 양념과 함께 버무리기 위해 소쿠리째 들고 자리를 옮기고 있는 모습, 잘 버무리려 김장 김치 한 가닥을 맛보기로 뜯어 입 속에 넣으려는 순간의 모습, 완성된 김장김치를 김치독에 쥘어 넣는 모습까지 김장 담그는 모든 모습을 한 화면에 파노라마처럼 담아낸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 모든 과정을 뒷마루에 앉아 진두지휘하는 듯 부름뜯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노할머니의 모습도 살아있는 '김장 문화'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따뜻하고 정감 있다.

오윤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소설가로 한국적인 소박한 서정의 세계에 기초를 둔 작품세계를 펼쳤던 오영수작



오윤 작 '김장'

가(1909-1979)의 장남으로 서울 퍼린 군부복제 시절이었던 1980년대를 리얼리즘 미술운동으로 맞섰을 뿐 아니라 전통미술의 형식을 빌린 독보적인 민중판화의 선구이자 상징적인 존재였다. 1980년대 투쟁적인 선전매체로 활용되던 여느 민중판화작품과는 달리 민중의 한과 신명을 작품에 녹여냈던 작가답게 김장, 웃놀이, 밭갈이, 범놀이, 북춤, 도깨비춤 등 한국인의 정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판화작품을 다수 남겨 40세 젊은 나이로 요절했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채무조정·서민대출·복지·주거상담을 한 곳에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분!

☑ **채무조정 상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저소득·저신용으로 대출이 힘든신 분!

☑ **서민대출 상담**
바뀌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대출
골목상권특례보증대출
빛고을론

복지·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

☑ **복지주거 상담**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영구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매입대 지원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차평동) 시청 1층 민원실

☎ (062) 613-6700~3